

주요 광물가격 동향 (12월 2주차)

- `22. 12. 19(월) 자원정보팀, 신산업비축팀 -

1. 6대 전략광물 가격 및 광물종합지수

단위 : U\$/톤 (우라늄:U\$/lb)

광종	연평균			주간평균			광물종합지수('16.1월=1,000)		
	'21	'22(11월말)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12.1주	12.2주	전주비(%)
동	9,293	8,856	△4.7%	8,431	8,356	△0.9%	3,430.79	3,411.67	△0.6
니켈	18,333	25,346	38.3%	29,253	28,687	△1.9%			
아연	2,968	3,518	18.5%	3,187	3,242	1.7%			
연료탄	127.14	344.29	170.8%	387.47	375.66	△3.0%			
원료탄	211.05	378.91	79.5%	251.20	252.80	0.6%			
철광석	164.69	121.49	△26.2%	109.71	110.71	0.9%			
우라늄	34.68	50.56	45.8%	48.40	48.34	△0.1%			

※ 동, 니켈, 아연(LME기준),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기준, ICE기준), 원료탄(호주 FOB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기준, 62%분광), 우라늄(NUEXCO 주간 현물가격지수)

◆ 동, 니켈, 아연 :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세

-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 및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달러가치가 하락하였으나, 유로존, 영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및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으로 비철금속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12월2주차 전기동과 니켈가격은 각각 전주대비 0.9%, 1.9% 하락세를 나타냄. 미국의 11월 인플레이션(CPI)은 전년동월대비 7.1% 상승으로 전월대비 0.6%p 감소로 시장전망치를 하회하면서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되었고, 미연준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상승폭을 50bp로 인상속도를 둔화시키면서 미달러가치가 하락한 상황임. 다만, 미연준은 '23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조정 하면서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스위스 국립은행(SNB)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중국의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로 전월대비 2.8%p 감소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양상을 나타냄. 전기동은 세계 동 광산생산 2위국인 페루의 Castillo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지자들의 도로점거 시위여파로 Glencore사의 Antapaccay광산('21년 17.1만톤 생산) 및 MMG사의 Las Bambas광산('21년 29만톤 생산)의 조업중단 우려가 심화됨. 아연은 LME 재고량이 36,625톤으로 전주대비 5.1% 감소, 14주연속 감소세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됨

◆ 유연탄 : 중국의 석탄중산 기조 및 산업생산 부진으로 하락세

- 12월2주차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74.29달러로 전주대비 4.6%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료탄 시장은 중국의 석탄중산 기조('22년 중국의 석탄생산 추정량 44억톤, 전년대비 8% 증가세) 및 산업생산 부진여파로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 철광석 : 중국의 철광석 수입증가에 따른 상승세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철광석 수입량이 9,885만톤으로 전월대비 4.1% 증가하면서 철광석 가격상승세를 견인함. 다만,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 및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하방요인이 상기 상승압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분석

◆ 우라늄 : 파운드(lb)당 48.34달러, 전주대비 0.1% 하락세(4주연속)

2. 주요 희소금속 : 망간, 리튬, 코발트, 희토류

단위 : U\$/톤(코발트:U\$/lb)

광종	연평균			주간평균			
	'21	'22(11월말)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페로망간	1,623	1,561	△ 3.8	1,445	1,445	-	
탄산리튬	18,943	71,556	277.7	81,930	80,718	△ 1.5	
코발트	24.27	31.92	31.5	23.35	22.80	△ 2.4	
희토류	산화디스프로슘	409,935	383,684	△ 6.4	337,500	347,900	3.1
	산화네오디뮴	98,365	136,045	38.3	107,000	108,800	1.7
	산화이트륨	6,422	12,024	87.2	7,600	7,600	-
	산화세륨	1,539	1,467	△ 4.7	1,275	1,275	-
	산화란탄	1,509	1,409	△ 6.7	1,225	1,225	-

※ 페로망간(중국 FOB기준 75%), 탄산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기준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기준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기준 99.5~99.9%), 산화이트륨(중국 FOB기준 99.999%min), 산화세륨, 산화란탄(중국 FOB기준 99.5~99.9%min)

- ◆ **페로망간** : 높은 운임과 원료비용으로 공급업체들이 제안가를 고수하며 가격 유지
 - 많은 공급업체들이 중국 춘절 연휴 전 철강 제조업체들의 재고 수요 강세를 예상하며 가격 인하 거부
- ◆ **탄산리튬** : 배터리 하류 부문의 수요 약세 및 원료 가격 하락 등 요인들로 인해 리튬 가격 하락세 지속
 - '22.12.14일 호주 Pilbara Minerals의 스포듀민 경매가격이 톤당 7,552달러로 전월 대비 하락
 - * 11월 경매가는 톤당 7,805달러였으며, Pilbara 경매가격 하락 전환으로 인해 시장여론은 향후 리튬염 및 원료 가격의 추가 하락을 전망
- ◆ **코발트** : 배터리 부문의 수요 약세가 지속되며 화합물 제조용 코발트 금속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합금용 코발트 금속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격 하락
 - 합금용 코발트 금속은 미국의 항공우주 등 특수합금 분야 수요가 가격을 지탱했으나, 중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배터리용 코발트 수요 약세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세 지속
- ◆ **희토류** : 산화물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중국 춘절 연휴 전 현물구매 수요가 증가하며 자석용 희토류 원료 가격 상승세 지속
 - 춘절 연휴 전 가격 추가 상승 및 잠재적 물류 차질 등에 대한 우려로 구매업체들의 재입고 수요가 증가했으며, 시장여론은 제한적인 산화물 공급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희토류 가격 상승세 유지를 전망
 - (경희토류) 산화네오디뮴 가격 상승, 산화세륨·란탄 가격 유지
 - (중희토류) 산화디스프로슘 가격 상승, 산화이트륨 가격 유지